



## 미 증시, FOMC 앞둔 대기심리에 혼조세 마감

### 미국 증시 리뷰

30 일(화) 미국 증시는 FOMC 결과 및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앞둔 대기 심리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, 소비심리지수 개선, 구인건수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위축되며 혼조세 마감 (다우 +0.35%, S&P500 -0.06%, 나스닥 -0.76%). 업종별로 금융(+1.2%), 에너지(+1%), 필수소비재(+0.6%) 강세, 부동산(-0.9%), IT(-0.7%), 통신(-0.7%)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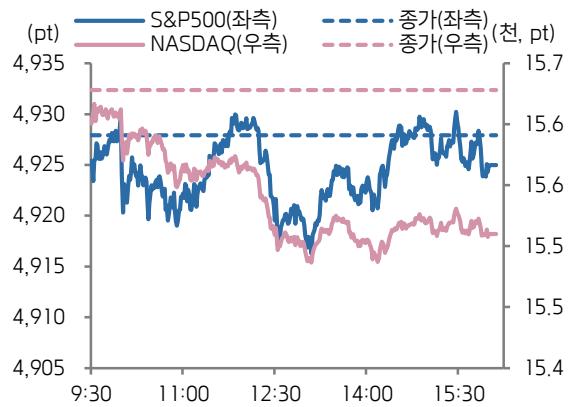
미국 1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14.8(예상 115.0, 전월 110.7)로 큰폭으로 개선. 인플레이션 안정, 고용시장 견고, 증시 호황과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을 반영. 12 월 JOLTS 채용공고 902.6 만건(예상 875 만건, 전월 879 만건)으로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상회, 3 개월만에 최고치. 반면, 자발적 퇴사는 340 만건으로 3 년 만에 최저치.

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과 미국 성장을 전망치를 상향하며 전세계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. 올해 세계 성장을 전망치는 지난 10 월 전망치 대비 0.2%p 높은 3.1%, 미국은 기존 1.5%에서 2.1%로 상향 조정.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경기 확장과 중국의 재정 부양책을 언급. 미국의 연착륙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IMF는 “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”이라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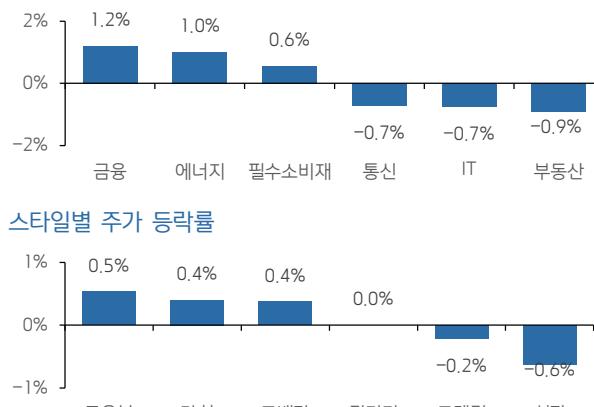
유로존 4 분기 GDP 성장률은 0.0% (예상 -0.1%, 3 분기 -0.1%), 연간으로 0.5% 기록. 역성장을 기록한 3 분기에서 반등하며 기술적 경기침체(2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)는 피했지만,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이 유로존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. 독일은 건설·기계·장비 부문이 크게 위축되며 4 분기 -0.3%(3 분기 0.0%)로 역성장.

GM(+7.23%)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4 분기 순익이 YOY 5% 증가한 21 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영업이익은 6 주에 걸친 파업과 전기차 부문 손실로 YOY 54% 급감했다고 보고. 그럼에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120~140 억 달러(시장예상 108 억달러)로 제시,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서 올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. BYD(-5.47%)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량 세계 1 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 따른 마진악화로 인해 순이익이 290 억~310 억위안으로 시장 예상 315 억위안을 하회하며 주가 급락, 전기차 수요부진 우려 확대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98.81	-0.07%	USD/KRW	1,329.50	-0.46%
코스피 200	337.48	-0.11%	달러 지수	103.49	+0.24%
코스닥	818.86	-0.03%	EUR/USD	1.08	+0.13%
코스닥 150	1,276.48	+0.43%	USD/CNH	7.19	+0.01%
S&P500	4,924.97	-0.06%	USD/JPY	147.60	+0.07%
NASDAQ	15,509.90	-0.76%	채권시장		
다우	38,467.31	+0.35%	국고채 3년	3.270	-3.4bp
VIX	13.34	-1.91%	국고채 10년	3.361	-8bp
러셀 2000	1,996.24	-0.76%	미국 국채 2년	4.293	-8.7bp
필라. 반도체	4,319.99	-1.56%	미국 국채 10년	4.118	-5.8bp
다우 운송	15,776.31	-1%	미국 국채 30년	4.371	-3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662.70	+0.5%	WTI	77.77	+1.29%
MSCI 전세계 지수	738.28	+0.61%	브렌트유	82.73	+0.4%
MSCI DM 지수	3,236.32	+0.62%	금	2054.3	+0.47%
MSCI EM 지수	990.18	+0.52%	은	23.29	+0.17%
MSCI 한국 ETF	59.91	-0.42%	구리	391.2	+0.8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37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13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4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27.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장중 1 월 FOMC 경계심리 유입세 심화 여부
2. MS, 알파벳의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

### 주요 체크 사항

3. UPS 주가 급락 vs 저 PBR 테마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시클리컬 업종 주가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인 1 월 FOMC 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,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주가 반응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. 일단 지난 12 월 FOMC 결과를 반추해보면, 점도표 상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9 월 5.1%에서 0.5bp 하향된 4.6%로 제시하면서, 연내 3 회 금리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. 코어 PCE(2.6%~>2.4%)에 변화를 줬다는 점이나,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기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도 시장이 해당 회의를 비둘기파 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.

하지만 당시 기자회견과 관련해, 12 월 FOMC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, 학계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“왜 그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까”와 같은 논쟁이 지속되기도 했음. 이후 뉴욕 연은 총재 등 파월 의장 제외한 여타 연준 인사들은 사태 수습성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,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은 연내 6 회 인하 기대감을 가져갔던 상황. 이를 고려했을 때, 이번 1 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본인의 12 월 기자회견으로 인해 과도하게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감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(Fed Watch 상 연내 5~6 회 사이에서 컨센 변화 중)

다만, 주식시장도 “1 월 FOMC 가 12 월에 비해 덜 비둘기파적일 것”이라는 전망을 1 월 이후 주가와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CME 선물 트레이딩 시장과는 달리, 증시에서는 3 월 인하 및 6 회 인하 기대감을 온전히 반영해오지 않았던 측면도 있음. 지난 12 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적긴축(QT) 축소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가 미국 중소형 은행권들의 유동성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,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QT 축소 논의가 나올지 여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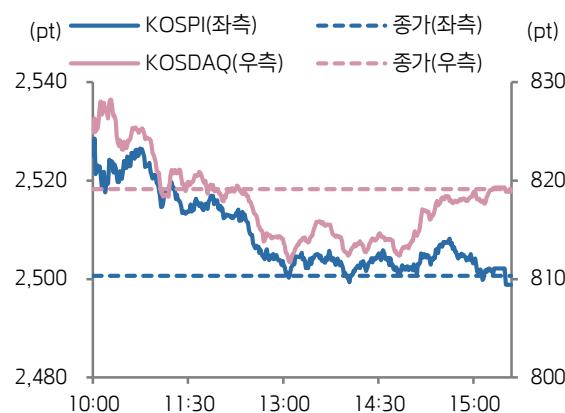
이처럼 1 월 FOMC 는 12 월처럼 증시 랠리의 동력을 제공할 소지는 낮으나, 이미 낮아진 기대감은 일정부분 기반영된 상태이기에 중립적인 결과로 소화할 것으로 보임. 또 12 월 JOLT 상 채용공고(903 만건, 컨센 870 만건)가 급증했다는 점도 이날 증시에 영향을 가했던 것처럼, FOMC 직후 예정된 1 월 비농업 고용(2 일), CPI(13 일), 파월의장 의회 증언(2 월 말~3 월 초) 등 사실상 연중 분기점인 3 월 FOMC 전까지 연준 정책을 둘러싼 기대감 변화는 번번할 전망(당사는 6 월 인하 시작 예상). 결국 이번 FOMC 가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정도의 매파 결과가 나오더라도, 이번 결과만 놓고서 대대적인 포지션 조정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.

전일 국내 증시는 직전일 저 PBR 주들의 차익실현, 고 PBR 주들의 저가매수 등 저 PBR 테마를 둘러싼 일부 되돌림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, 중화권 증시 급락, 1 월 FOMC 경계심리 등으로 약보합 마감(코스피 -0.07%, 코스닥 -0.03%).

금일에도 1 월 FOMC 관망심리 속 애플(-1.9%) 등 미국 M7 실적 경계감에서 기인한 나스닥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지수는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며, 그 안에서 장중 개별 업종 이슈를 반영해가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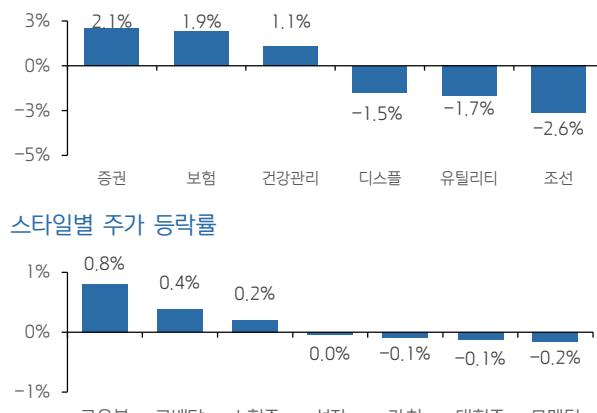
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, AI 등 IT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.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MS(-0.3%)은 클라우드 사업 부문 호조로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, 시간외에서 1% 내외 주가하락세를 연출 중. 알파벳(-1.3%)의 컨센 상회 실적에도,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4% 내외 주가 급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대장주인 미국 M7 의 실적 이벤트가 순탄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. 또 저 PBR 테마가 잔존해 있긴 하지만, 전세계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 UPS(-8.2%)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국내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.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